

지역 매아리

정읍시보건소, 합동단속반 편성 양귀비·대마 밀 경작 단속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4월 초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정읍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 경작 우려지역에 대한 탐문 수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 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에 공담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투약(사용) 사범에 대한 계도를 통해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에서는 대량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사람과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한다.

초범인 밀 경작의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과 경위, 재배 면적, 재배량, 전년도 재배 실적 등을 면밀히 수사에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4일 고창읍 노동저수지 앞에서 '생태공원-자연마당' 개장식을 열었다.

명품 생태공원으로 재탄생

고창군, 노동저수지 일원서 '생태공원-자연마당' 개장 불법개간 등 훼손된 곳에 숲 체험원·탐방로 들어서

앞에는 수방벽들의 초록 잎이 물아나는 저수지, 뒤에는 둘레만 1684m에 달하는 고창읍성 성곽이 한 눈에 보이는 명품 생태공원이 탄생했다.

고창군은 4일 고창읍 노동저수지 일원에서 '생태공원-자연마당' 개장식을 열었다. 생태공원이 들어선 곳은 오랫동안 불법개간, 묘지 조성으로 훼손돼 생물 서식공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군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사유지 매입, 묘지를 이장시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 시켜 나갔다. 3년여 동안 ▲습지 조성 ▲유아놀이터 ▲숲체험원 ▲야외학습장 ▲탐방로 등 다양한 생태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고창 자연마당은 도심 속에서도 역사, 부들, 참포, 연꽃 등을 볼 수 있는 자연형 습지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 시켰다.

군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된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와 연계해 군민, 학생의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수상데크와 탐방로를 완료할 예정으로 가족·연인들이 가볍게 산책하고,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유이상 고창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고창군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혁신자문단 위촉식 가저

정읍시가 4일 별관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혁신자문단(이하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에서는 혁신 전문가 총 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어 정부혁신 추진계획 설명과 혁신을 주제로 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혁신자문단은 정부혁신의 기본방향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기조에 따라 '시민이 주인인 정읍·보다 나은 정읍'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혁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시는 정책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대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을 바탕으로 지방행정 혁신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15일까지 추천 받아

정읍시가 오는 15일까지 '제9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해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연구·문화 사업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다.

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지역 내 사회단체장·학교장·실과소장·읍면동장, 학사자, 연구자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위원회'를 개최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새로운 명소, 샘고을 야시장 관광객 '복새통'

정읍을 대표하는 105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인 '샘고을 시장'이 오갈만족 먹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야시장을 성황리에 마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신했다.

올해로 개장 5주년을 맞은 '샘고을 야(野)한 야시장'은 지난 5일(3월 29일~4월 2일) 열렸다.

다양한 먹거리와 추억을 떠올리는 볼거리가 마련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 샘고을 전통시장의 옛 추억과 향수, 지역전통과 문화를 활용한 향토음식과 다양한 먹거리, 지역 동아리 단체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통가수들의 향연이 밤 분위기를 살렸다.

여기에 전체 이동 판매대의 80%를 차지하는 지역 상인들의 열정과 활기가 더해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도시에 활력을 불

시 관계자는 "기존 시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상인들이 참여했다"며 "청년층에게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 기반을 다져 나갔다"고 밝혔다.

한편 샘고을 시장은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8억6천만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돼 올해 사업 2년차를 맞고 있다.

시는 샘고을 야(野)한 야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한편 벚꽃길, 내장산 단풍과 구절초축제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돼 야간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도시에 활력을 불



어넣는 곳이다"면서 "샘고을 시장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야시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야시장은 오는 5월 9일 '정읍 샘고을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널리 알린다

고창군, 무장기포지서 포고문 낭독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개최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오는 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가 열린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와 무장기포 기념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출정식, 포고문 낭독, 헌화에 이어 무장기포지에서 무장현 관아와 읍성까지 동학농민군 진격로(7.2km) 걷기, 입성맞이 행사, 기념식, 제12회 녹두대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또 행사장에는 전북과학대학교 봉사단이 고창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 행복사진 촬영 액자 배부, 아로마 마사지 등 다채로운 나눔 행사도 펼친다. 앞서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는 중

앙정부의 권세가와 탐관오리 숙청을 위한 전국적인 산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

농민군은 무장에서 기포한 이후 백산대화에 이르기까지 농민군 4대 명와 군을 발표하고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하는 군사조직을 갖췄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전승은 봉건체제의 억압과 질곡의 한계를 극복해가는 농민의식의 성장과정을 기억하는 일이다"며 "무장기포지 사적 승격, 무장기포 역사적 의미 교과서 수록, 전국단위 행사서 포고문 낭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에선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그린 SBS드라마 '녹두꽃'(28일 첫방, 금, 토 오후 10시 방영, 연출 신경수, 극본 정현민, 배우 조정석, 윤시윤, 한예리, 최무성 등에 제작자원을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자율방범연합대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4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전한 마을 만드는데 최선을"

부안군자율방범대, 창립25주년 기념 범죄예방 결의대회 가저

부안군자율방범연합대(대장 최성문)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4일 부안스포츠파크에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권익현 부안군수, 임성제 부안경찰서장, 경세광 전북도자율방범연합회장, 군·도의원, 각지 대장, 대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결의대회는 부안군 자율방범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등 부안군자율방범대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 가족체육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최성문 부안군자율방범연합대장은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 창립

25주년을 맞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청소년선도, 학교폭력추방, 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밝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지역치안유지를 위해 수고하신 대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2023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과 질서유지가 중요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자율방범대원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며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 large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